

배포일시	2025. 08. 06.(수)		보도일시	배포 즉시
보도자료 담당	대외협력팀	최대건 연구원	061-928-8048	
			dgchoi23@vaccinecmo.or.kr	

미생물실증지원센터, 화순고등학교와 백신 전문가 교육 성료

- 07월 30일부터 08월 01일까지 3일간 교육 성공적으로 마무리...백신 전문가
양성 프로그램 운영

-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(센터장 조민, 이하 센터)와 화순고등학교는 3학년 학생 16명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의 백신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교육은 전남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위치한 센터의 최신 GMP 인프라를 활용하여,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. 학생들은 실험실 이론뿐 아니라 현장 수준의 장비 실습, GMP 문서 관리 및 VR을 활용한 생산공정을 직접 경험하며 현장 감각을 익혔다.
- 특히, 지난 5월 화순고등학교를 포함한 화순군 내 교육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(GIST) 등 5개 기관이 '전남교육발전특구'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(MoU)을 체결한 이후, 화순고와 처음으로 유의미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에서 주목된다.
- 화순고등학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와 연계한 제약바이오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, 전국 유일의 특화

고등학교로 도약하고자 한다. 화순군 내 최대 규모의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로서, 향후 행보 역시 주목할 만하다.

- 화순군은 지난해 6월 전국 5곳 유일의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어, 약 73만 평 규모의 첨단 백신·면역치료 단지 조성을 계획하며 바이오 및 백신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.
- 한편,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원하는 '백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'을 통해 광주·전남권 최대 규모의 GMP 실습이 가능한 첨단 교육관을 개관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인력 양성에 나선다.
- 해당 교육관에는 미생물 배양부터 정제까지 실습 가능한 50L 배양기, 고압멸균기, 연속원심분리기 등 의약품 생산 설비와 함께, HPLC, LC-MS를 활용한 이화학 분석, 미생물 시험, 환경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실습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 예정이다. 2026년까지 900명 이상 배출을 목표로 하며, WHO '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' 운영에도 협력해 국내외 백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.

붙임 : 사진자료 2부. 끝.

본 저작물은 (재)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로, 출처 표시를 하실 경우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.

[붙임]



▲ 화순고등학교 학생이 수료하는 장면



▲ 왼쪽부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본관, mRNA 제조동, 교육관